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 붙임번호	12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사회문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적 불평등, 분배적 정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분업, 노동자,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부조리,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적 연대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A국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반면 자영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빈민이 되었고,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다. B는 시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하고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

- 개인이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룸*으로 정한다. 이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룸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 1,000유게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1유게룸=0.25ha

②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③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과 사물을 아울러 잘 다스린다.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그 분야를 맡기면 국부가 넉넉해진다.

④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

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멕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
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
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
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중략)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 씨 만나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 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
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처 이 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처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교수 그래, 김 씨랬어.

(중략)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짚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
어떤 여자의 고백』,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⑤

생명체가 가진 많은 수의 유전자에는 효소뿐만 아니라 특정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유
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단백질에
의해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과 같은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를 '3 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3 염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합성될까?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와 같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전사하여 RNA를 만든 후, 코돈을 번역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 중에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도 있고, 생명체에서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있으며,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작용하는 것도 있다.

* 리보솜: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 코돈: RNA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

【문제 1】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그림1]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연도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2010	63.0	53.3	53.3	33.3
2011	63.0	53.3	53.3	33.3
2012	63.0	53.3	53.3	33.3
2013	63.0	53.3	53.3	33.3
2014	63.0	53.3	53.3	33.3
2015	65.0	53.3	49.7	35.0

※ 시간당 임금 중액 기준(대기업 정규직=100) (고용 노동부, 2016)

[그림2] 디지털 음원의 수익 구조

종류	비율 (%)
제작사	44
음원 유통 업체	40
가수	6
작사·작곡·편곡가	10

(문화체육관광부, 2015)

[그림3]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원인

원인	비율 (%)
부의 세습으로 계층 이동 곤란	31.0
비정규직의 노동 시장 불명확	22.2
과도한 학벌 사회	16.5
부족한 사회 안전망	14.7
기타	9.8
모름·무응답	5.8

자료: 한겨레 사회 정책 연구소, 2012

[그림4]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연도	부정 수급자 수(명)	부정 수급액(백만 원)
2013	21,735	11,725
2014	22,108	13,092
2015	21,493	14,806

(고용 노동부, 2015)

【문제 2】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십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과거의 단순 협업과는 다르다. 과거의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았지만, 공장제 수공업에 의한 노동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소외시켰다. 사적 소유와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 결국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속해서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하고 인간이 물질에 종속되어 인간성을 상실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출제 의도

-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세계사>, <사회문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 교과가 다루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사회와 윤리',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사회 계층과 불평등', '사회정의와 불평등', '생명 시스템', '대한민국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의 정의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통합과학> 등 교과가 다루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사회와 윤리', '사회사상',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생명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한국사) 교육과정” 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원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②,④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 붙임번호	13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국어, 세계사, 세계지리,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저출산·고령화, 공동체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②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가 대폭락하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유럽, 아시아 등도 타격을 받아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극복을 위해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 조정법	곡물 가격 설정, 농업 생산 조절,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법	국토 개발과 일자리 제공
국가 산업 부흥법	산업 부문의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사회 보장법	노인 연금, 실업자 수당, 주 정부의 규제활동에 연방 정부의 지원

③

두레가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인동이와 막동이 사이도 웅매듬이 풀어졌다. 백룡이 모친은 밤저녁으로 두레 노는 것을 보고 오는 길에 쇠득이 집으로 들어가서 “형님, 쇠득이가 어짜면 춤을 그렇게 잘 춘다우?”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꺼내었다.

(중략)

백룡이네 논을 매러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때의 쉼 참이 되었다.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싸여서 이야기의 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여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논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왜 월급 생활은 않는다나?”하고 조 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북 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 참.”

조 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이에게로 돌리는데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유지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 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추렴을 들다: 남들이 말하는 데 한몫 끼어 말하다.

*여북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④

오늘날 한류(韓流)로 알려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한민족은 70여 년을 분단 상태로 지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位相)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抹殺)* 정책으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文盲率)*이 약 80%에 이를 정도였다.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다. (중략)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다. (중략)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 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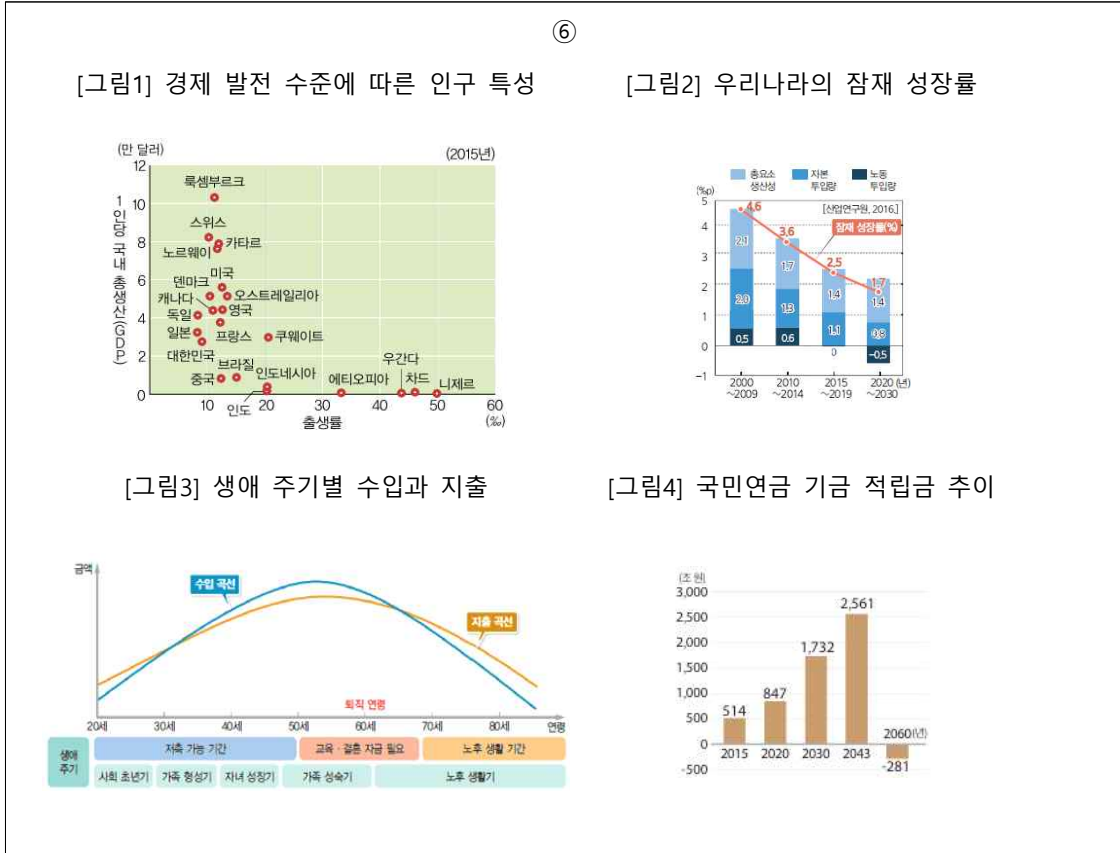
*말살(抹殺): 있는 사물을 몽개어 아주 없애 버림.

*문맹률(文盲率):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

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P_{손실}$)은 송전선의 저항(R)이 크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I)가 클수록 크다($P_{손실}=I^2R$). 따라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한다.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송전선의 제작 비용이 증가하고, 송전선이 무거워져 이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것이다. 전력($P_{송전}$)은 전압과 전류의 곱($P_{송전}=VI$)이므로 전력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여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최종 소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크더라도 소비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만 전력을 소모할 뿐이다. 반대로 전력 사용량이 최대 생산량에 가까워지면 모든 발전기가 최대로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다. 한 발전기가 고장나면 다른 발전기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므로 연쇄적인 고장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이 연구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자 사이에 전선을 통한 양방향 통신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비량이 적은 쪽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이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초과되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문제 1】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문제 2】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념 행위들, 특히 공화국의 기념 행위들이 시장의 세계화와 폭증하는 정보 사회에서 더는 가치가 없는 케케묵은 애국주의의 표현이며, 지나간 시대의 잔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들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이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은 비굴해져 있다가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쉽사리 포악한 압제자로 돌변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국과 조상의 위대함에 대해 비겁한 거짓말로 잔뜩 치장한 유치찬란한 국민적 자부심이 아니다. 우